

인재 유출·하향평준화...광주교육 걱정된다

광주 사실상 자사고 폐지...만만찮은 후폭풍 예고

신입생 미달 땀 송원고도 일반고 전환 가능성 전학 사태 등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 될 우려 “일방통행 교육독재 너무 심하다” 학부모들 반발

광주 송덕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간판을 스스로 내렸다. 송원고는 광주시 교육청의 압박에 굴복, 자사고의 특징인 성적 제한을 없애 허울뿐인 자사고로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 사실상 광주에는 자사고가 사라진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일반고의 학력 제고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고를 폐지함에 따라 우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실력은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놓고 벌어진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자사고인 송원고·송덕고간 갈등은 교육청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송원고는 '자사고의 메리트'인 성적 제한 규정을 잃었고, 송덕고는 아예 자사고 지정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자사고 폐지로 대변되는 진보적 가치를 성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육감의 일방통행 교육행정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우수인재 유출 가속화 우려=교육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는 유지했다. 다만, 내년도 신입생은 현재의 재학생(내신 상위 30% 이내)과 달리 성적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해 추천 선발한다.

송덕고는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만큼 내년도 신입생은 광주지역 다른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뽕뽕이’로 배정받는다.

내년에 1학년은 일반고 학생, 2·3학년은 자사고 학생이 한 학교에 함께 다니게 된다. 갑작스런 자사고 변화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2012년 보문고 사태처럼 무더기 전학사태가 우려된다.

성적 우수자만 선발한다는 '자사고 메리트'가 사라진 송원고나, 일반고로 전환해버린 송덕고에서 굳이 3배나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내신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상당수 학부모가 타 지역이나 일반고 전학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고의 경우, 신입생 모집도 문제다. 특별한 강점이 없이 수업료만 3배가량 비싼 학교에 얼마나 지원할지 미지수인 탓이다. 보문고 때와 같은 신입생 미달과 재학생 전학사태가 이어지면 송원고도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방통행 교육독재 비난도=교육행정에는 없고, 진보교육감의 교육철학만 있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교육독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송원고는 5년전 자사고 지정 당시 학교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교육청의 권유로 자사고 설립에 뛰어든다는 같은 혼란에 빠졌다. 전일 교육감 때라고는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순배다 뒤집듯 바뀌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려 행정행위라는 비판이다.

실제 “만약 교육감이 불상사로 내일 당장 바뀌는 사태가 발생, 새 교육감이 자사



자율형사립고인 광주 송덕고가 광주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자사고 규제에 강하게 반발, 자사고 반납을 결정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감이 누구 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은 하룻새 뒤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교육감이 교육독재를 자행하

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송원고의 한 학부모는 “교육청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미리 정해진 답안을 놓고 ‘따라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거나’를 강요했다. 일방적인 교육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실 광주 경찰간부 유서에 내부 비리·승진심사 불신

“뺨은 필수요, 돈은 당연한 거래 승진자 확인해보면 사실입니다”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 촉각

광주지역 경찰 간부의 자살사건이 경찰 내부의 '비리' 의혹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해당 경찰이 검사에게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자택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광주일보 8월 15일자 7면> 그는 최근 정부가 신규 허가를 금지한 대형 화물차량을 불법으로 증차, 부당 이득을 챙긴 화물운송업체 등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에 휘말렸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경찰 자체 조사 등을 받았다. 경찰은 이후 A 경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 경감에 대한 검찰 수사 소문이 다시 경찰 안팎에서 나돌면서 A 경감은 “(직원 및 주변인들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과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다”며 검사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편지 형식의 글을 남기고 끝내 목숨을 끊었다.

그는 편지에서 화물차 불법 증차 수사 관련, 경찰 조직 내부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경찰 조직 내 알투·심사 승진 과정에 대한 불신을 드

러냈다. “뺨은 필수요, 돈은 당연한 거래가 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각심사 승진자를 확인해보면 사실입니다... 일 잘해도 돈은 필수 지침금”이라고도 썼다.

A 경감은 “어떠한 외부의 유혹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왔다”며 결백을 설명하는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빼곡히 적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A 경감은 마지막으로 “검사님, 더이상 (직원 및 주변인들의) 시선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면서 “꼭 진실을 규명, 공개해주면 가족들은 위안이 될 것, 나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경찰은 담당 검사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A 경감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간부가 조직 내 폐단을 지적하면서 유병인 부실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추락한 경찰에 대한 불신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화물차 불법증차 사건을 송치하도록 명령, 직접 수사를 벌여 화물차주 2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3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곡성 교통사고 전 군의원 숨겨

지난 16일 오후 6시 25분께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 곡성미곡저장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곡성군 4·5대 의원을 지낸 박모(69)씨가 운전하던 소년도 차량과 마주오던 소나타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4)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씨가 중상을 입고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18)·박모(15)군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김군 등의 진술과 마주오던 소나타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4)가 충돌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택시 내리던 승객, 뒤따르던 택시기사 경적에 격분 주먹질



○...택시에서 내리던 40대 남성이 뒤에 있던 택시기사가 “자꾸 차를 따라오라”라며 경적을 울리자 격분,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서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중공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하차하고 있던 택시를 향해 고함치고 경적

을 울린 택시 기사(42)의 목을 5차례 내리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경찰에서 “택시 요금으로 5만원짜리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그새를 못잡고 자꾸 경적을 누르기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

음란행위 혐의 물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검사장 신분, 조사에 방해된다면 물러날 것”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철저한 조사에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방해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으로서의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

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도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관사 인근에서 느닷없이 경찰에 잡히는 황당하고 아이없는 병변을 당해져와 제 가족은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평생 한이 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 체포 당시 동생 이름을 댄 것과 관

련해서는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약점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죄가 없기 때문에 하우이를 해명하면 조용히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준호 검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경위 파악에 나섰던 대검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협뉴스

1전비 전투기 야간훈련 18·19일 이틀간 실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공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전투기 야간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은 이를 통한 오후 7시30분부터 밤 9시40분까지 2시간10분간 서구 상무지구와 광산구 월곡동 등 일대 상공을 지나는 조종사양성교육 훈련을 진행한다.

공군 측은 “야간훈련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좋은
- ★ 사무실 적합, 전채 올수리 시세/분양가-4억
-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좋은
- 전채 올수리, 주거겸/사무실 겸용
- ★ 시세/분양가-2억
-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 매매-6500만원
- 일시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010-3605-5000

콘도/별장/펜션
문의, 010-3605-50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 전기, 수도, 가스 개별
-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 화개장터, 생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
- 56평 - 2억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대자공인중개사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 2차선 포장도로로 접
- 전면 85m 접
- 매매가 2억1800만원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입합니다.
★ **급매물 접수합니다**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